

MC : 인천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진보정의당에 합류를 해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정수영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구 제4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 네. 안녕하세요.

MC : 네, 반갑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죠?

의원 : 예

MC : 원래 스튜디오 오시기로 했다가 지금 해안도로에서 전화연결 중이시라고요?

의원 : 예

MC : 자, 통합진보당에서 지난 9월에 탈당을 하셨는데 통합진보당의 내홍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안타까웠어요. 의원님 어떨습니까?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진보정치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참 죄송하단 말을 먼저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12년 정도 진보정치인으로 활동을 해왔고 의회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과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고 다음에 지금 실망을 넘어서 자정노력을 제대로 못 보이다 보니까 냉소로 까지 무관심으로 까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서민이 바라는 진보정치는 그렇다고 멈출 수 없고 변화된 시대를 좀더 선도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진보정치가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MC : 그렇군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구청장도 계시고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탈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은 탈당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나 봐요?

의원 : 예

MC : 만나보셨습니까?

의원 : 예, 인천에서는 진보구청장이 남동구, 동구 2분이 있고 시의원 2분이 있고, 구의원도 5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의원 중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구 당권파의 비상식적

인 패권정치나 이런데서 환멸과 반대의사가 분명한데 이게 탈당으로 까지 결행을 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동구 의원은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이다 보니까 탈당을 하는 순간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나 탈당으로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직자는 시의원, 구의원은 탈당을 했고 새로운 진보정의당에 합류를 하고 있는데 한두 분 정도의 어려운 사정,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MC :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창당을 선언한 기자회견도 하셨죠?

의원 : 예

MC : 그런데 당명에 대해서 조금 이론이 있어요? 진보정의당 어떤 뜻입니까?

의원 :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진보정의당 이러니까 예전에 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졌던 민주정의당이 연상이 되서 말씀도 좀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정의가 그 정의라는 뜻이 많은 뜻을 갖고 있고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많이 좀 그러한 식으로 퇴색되어서 오히려 올바른 의미를 되살리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정의라고 한다면 실제로 민주주의와 평등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치,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이런 부분들의 다 큰 뜻에서 보면 이 시대의 정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정의를 실현해 나간다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지게 됐고요, 이 과정을 받기인 260명 이상이 4시간에 걸쳐서 표결을 10여 차례 하면서 만들어진,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서 이것을 다 수용을 하는 것이고 또 자주 불러 보면 정의 갑니다.

MC : 사실은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나쁜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건데.... 80년대에 정의롭지 못한 세력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정식창당식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인천시당이요?

의원 : 인천시당 오늘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고요. 중앙당은 21일 이번주 일요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MC :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12개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위원회도 함께 오늘 창당이 되는 겁니까?

의원 : 일단은 시당은 오늘 창당하고요, 그리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창당이 되야지 중앙당 창

당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천시당이 창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위원회는 현재 구성은 강화, 옹진쪽을 빼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C : 그렇군요. 그러면 진보정의당 인천시당을 이끌어 갈 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겠네요. 오늘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의원 : 그렇죠. 오늘 결정이 되는 데 창당준비위원회에서는 단일안으로 지도부를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전에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셨던 김성진위원장이 위원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MC : 진보정의당 창당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심상정의원, 대선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의원 : 예

MC : 한때 통합진보당 내홍 과정에서 반성의 의미로 대선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대선 후보를 내시는 겁니까?

의원 : 예, 그래서 대선후보를 내지 말자 내자 하는 이견이 있었지만 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이유는 이것이 지금 진보정치가 잘못된 부분은 명확해 반성하고 성찰하고 여전히 살아 있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을 의무는 또한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확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정권교체 정확히 이바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진보정치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저희들의 생각을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의 선거국면에서는 후보가 그 예기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MC :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내부 경선은 안치를 생각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 : 내부경선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등록한 후보로 등록한 것이 단일후보로 심상정 현 의원이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찬반으로만 찬성, 반대로만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래서 단일후보로 추대가 될 예정입니다.

MC : 중앙당창당이 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될 일이네요.

의원 : 창당하는 날 21일 이번 일요일날 후보까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MC : 그렇군요. 당의 내홍 끝에 진보정의당 소속으로 새롭게 의정활동을 전개 하실텐데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각오 한 말씀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의원 : 예,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들로서는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진보정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는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인천에서는 인천의 진보정의당 소속으로 된 시의원이 2분이 계신데 함께 인천시정을 올바른 진보정치의 길로 진보정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명확하게 정권교체에 헌신을 다해서 복무를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진보정치에 기본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된 정치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C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 : 예, 고맙습니다.

MC : 인천의정중계탑이었습니다. 정수영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